

# 재정패널 소식지

2020년 제2호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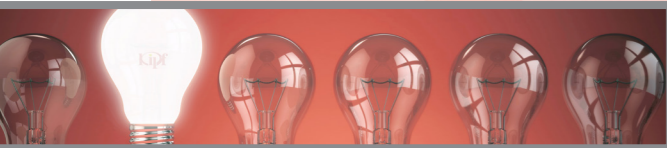
# 재정패널 소식지

2020년 제2호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www.kipf.re.kr/panel/](http://www.kipf.re.kr/panel/)

—  
—  
—  
—  
—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 재정패널 소식지

2020년 제2호

재정패널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 Contents

재정패널 소개	04
재정패널 공식자료 이용안내	06
SMART NaSTaB 안내	07
12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 미세먼지	08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12
재정패널 활용 연구	3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재정패널 조사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종단조사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 2020년 현재 13차년도 조사 진행 중

## 조사 대상

-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출된 5,634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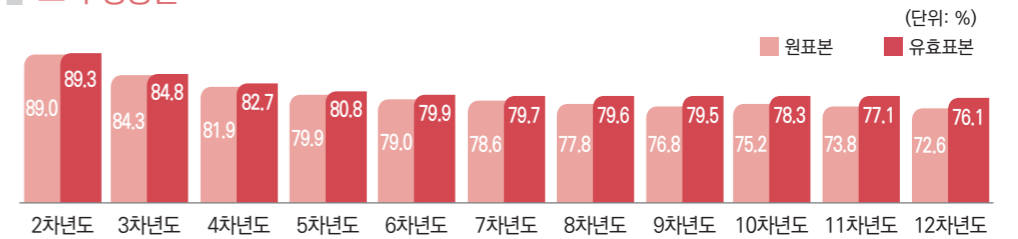
## 조사 영역

- 납세 및 복지, 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경제활동상태, 소득공제내역, 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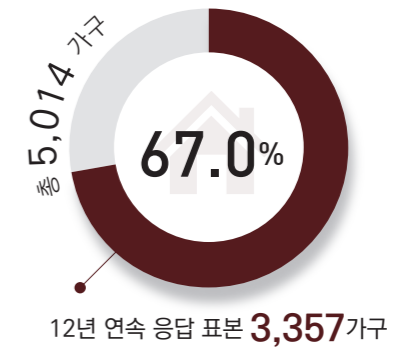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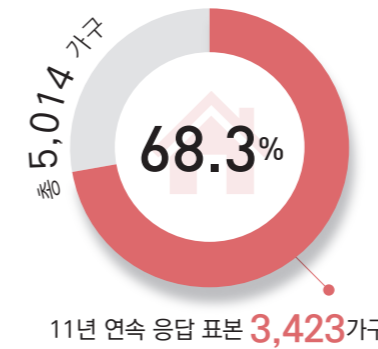
## 조사 특징

- 1)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 2)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 3)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 조사 성공률



- 원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시망, 해외이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문의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DB팀  
044-414-2473/2394  
panel@kipf.re.kr

-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panel/>

## 재정패널 공식자료

- 1) 제공 범위: 1-11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테크니컬 리포트
- 2) 제공 방식: 공식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 3) 2020년 12월, 12차 재정패널 데이터 공개 예정

##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ipf.re.kr/panel/>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개편
- 간단한 연구 관련 정보 입력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 SMART NaSTaB이란?

- 재정패널자료의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구축한 STATA 프로그램

## SMART NaSTaB 프로그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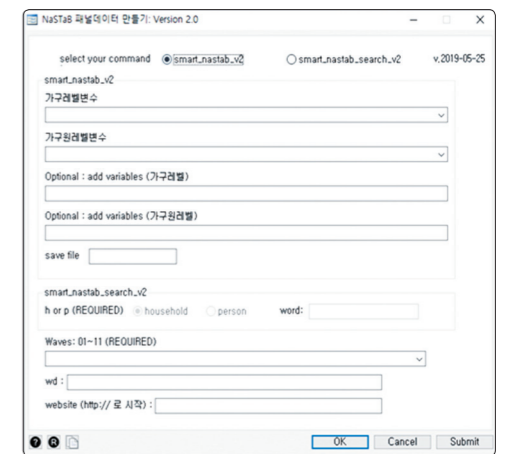
- 연도별, 가구별, 가구원별 데이터 병합
- 소득 및 지출 등 생성 변수 추출

## SMART NaSTaB 다운로드

-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SMART NaSTaB(다운로드)

## SMART NaSTaB 이용

- STATA 13.0버전 이상에서 구동 가능
- 대화창 및 명령구문을 통해 활용 가능



< 대화창을 통한 SMART NaSTaB 이용화면 >

재정패널조사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시점에 한시적으로 신규 문항을 추가하는 “부가조사”를 진행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인의 노력 및 정부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12차년도 재정패널 부가조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12차년도 부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base: 가구원 의식 조사 응답자 전체, n=7,697)

구분	항목	%
미세먼지 심각성	매우 심각하다	29.1
	어느 정도 심각하다	54.6
	보통이다	12.4
	별로 심각하지 않다	3.5
	전혀 심각하지 않다	0.5
미세먼지 경보 시 마스크 착용 정도	항상 착용한다	3.3
	거의 대부분 착용한다	15.9
	가끔 착용한다	31.4
	거의 대부분 착용하지 않는다	29.6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원인 비중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19.8
	국내적 요인	40.9
	국외적 요인	59.1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응답자의 83.7%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경보 시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항상 착용한다 + 거의 대부분 착용한다) 비중은 19.2%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국외 요인이 59.1%, 국내 요인은 40.9%를 차지한다고 인식하였다.

〈표2〉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증세

(base: 가구원 의식 조사 응답자 전체, n=7,697)

구분	항목	%
증세 찬성 여부	예, 찬성합니다	42.2
	아니오, 반대합니다	57.8
증세 찬성 시, 세금 부담 정도 (Base : 증세 찬성)	연 10,000원 미만	54.4
	연 10,000원 ~ 연 50,000원 미만	37.7
	연 50,000원 ~ 연 100,000원 미만	6.9
	연 100,000원 이상	1.0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증세에 대해 42.2%는 찬성하지만, 57.8%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를 찬성하는 경우 세금 부담 정도는 연 10,000원 미만이 54.4%로 가장 높았다.

〈표3〉 향후 차량 구매 시 구입 희망 차량 종류

(base: 가구원 의식 조사 응답자 전체, n=7,697)

구분	항목	%
구입 희망 차량	전기차	38.1
	하이브리드차	25.4
	휘발유(가솔린)차	16.7
	수소차	8.9
	LPG차	6.2
	경유(디젤)차	4.3
	모름/거절	0.3

향후 차량 구매 시 구입 희망 차량으로 ‘전기차’가 38.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하이브리드차’(25.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설문조사에서는 미세먼지 부가조사와 연계하여 각 가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지출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표4〉 미세먼지 관련 가구 지출

(base: 가구조사 응답자 전체, n=4,766)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 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공기청정기 구입 여부 및 구입 비용 (2018년 말 기준)	17.6	56.9	10.4
공기청정기 렌탈 여부 및 월 렌탈 비용 (2018년 말 기준)	4.4	4.6	0.2
마스크 지출 비용	42.6	4.6	2.0
기타 비용 (필터, 화분 등)	8.0	9.9	0.2

2018년 말 기준, 전체 가구 중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비율은 17.6%이며, 해당 가구의 평균 구입 금액은 56.9만원이다. 또한, 공기청정기를 렌탈한 비율은 4.4%이며, 해당 가구의 평균 렌탈 금액은 월 4.6만원이다.

2018년 한 해 마스크를 구입한 비율은 전체 가구의 42.6%로 해당 가구의 평균 지출 금액은 4.6만원이었다. 또한, 필터 교체, 화분 등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8%이며 평균 9.9만원을 지출하였다.

\*12차년도 재정패널조사는 2020년 12월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정패널조사는 조사대상이 동일한 패널조사로, 현 연도와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는 각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가구'는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예정인 '12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panel.kipf.re.kr

■  
—  
■  
—  
■  
—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20년

#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지난 9월 11일 개최된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초록입니다. 전문은 재정패널 홈페이지(panel.kipf.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1

## 가계의 부동산 자산 분배 상태와 보유세 개편의 효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박종선 전남대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거품, 거시경제 불안정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신진욱(2013)이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불평등이 다른 한쪽의 상대적 평등에 의해 상쇄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불평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로 인해 자산이 없는, 혹은 가격이 정해진 자산을 가진 계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적 자산 규모 하락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소득과 자산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계층, 즉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경우 소득은 적는데 임대료가 높은 상황, 즉 이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가격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대출규제, 세 부담강화, 거래규제, 공급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는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구사해야 한다. 물론 정책의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화 그 자체라기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일 것인데 그러한 목적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의 이유 없는 급등, 그로 인한 과도한 불로소득의 창출은 정책적으로 차단해 주어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부동산 세제는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해 적절한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줄임으로써 과도한 투기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재정패널 12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의 부동산자산 특히 주택자산의 분배 상태를 살펴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개편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부동산자산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주거형태 그리고 연령, 소득, 자산 수준에 따른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현행 재산세, 종부세 세제하에서의 보유세 세부담을 추정하고 이후 예정되어 있는 공시가격비율 100% 실시, 종부세율 인상 시의 전체 세수 변화 및 가계 세부담 변화, 더 나아가 시가표준액 현실화 시의 전체 세수 변화 및 가계 세부담 변화를 모의실험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볼 것이다.



### » I-2

## 보유세 정책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강성훈 한양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입법부 신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보유세 부담이 불형평하게 높을 경우 입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입법부 신뢰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정부 신뢰 감소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정치성향이 보수성향일수록, 소득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클수록 입법부 선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 증가는 입법부 및 행정부 신뢰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사회적 신뢰 영향은 행정부 신뢰에서 더 크게 관측되었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 II-1

## 연령구조와 소득분포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본고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편제하고 있는 조세재정패널 1~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과 소득의 관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변함에 따라서 소득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가구주의 소득의 종류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정효과 선형 패널 회귀분석(fixed effect linear panel regression)을 고려한다. 아울러, 소득분포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분포에 따른 분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병행한다. 추정 결과, 회귀분석의 경우 연령과 노령더미의 교차항의 계수에 대한 추정값이 근로소득의 경우에 양수로 추정된 반면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음수로 추정되었다. 반면, 분위별 회귀분석에서는 해당 계수가 전반적으로 음수로 추정되어 회귀분석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보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분위별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노령층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II-2

**가구별 특성 및 조세제도 등의 외생적 요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부의 이전과 관련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인 증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5차~12차연도(2011년~2018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세적 요인 및 비조세적 요인들이 세대·가족 간의 증여 유형과 그 대상자산 및 규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먼저, 증여인·수증인 관계별 증여 사실과 관련하여 가구별 특성의 영향은 상당 부분 일반적 예상을 뒷받침하는 반면 조세제도의 외생적 요인은 부분적으로 비유적 영향을 미치거나 일반적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구별 특성과 관련하여 증여재산이 부동산 또는 현금등에 해당할수록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의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과 함께 비교적 최근인 2014년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할 경우 가구순소득 또는 가구순자산이 커질수록 각각 배우자 간 증여 및 기타 친인척 간 증여의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이 특징적인 분석결과이다. 조세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가한 2014년 이후의 기간에 배우자 간 증여의 가능성이 증가해서 일반적 예상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반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및 기타 친인척 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가한 2016년 이후의 기간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의 가능성이 증가해서 일반적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별 조세제도의 개편이 증여인·수증인 관계별 증여 사실에 당초의 예상에 부합하는 유의적 영향을 충분히 미치지 않은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해 제공하는 조세유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거나 비교적 큰 규모의 증여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조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과 관련하여 조세제도의 외생적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구별 특성의 영향은 2014년 이후로 분석 기간을 한정할 경우 일부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증여자의 기대여명이 증가하거나 기타자산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커질수록 현금증여의 가능성이 커지고, 가구순소득이 커질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은 특징적인 분석결과이다. 개별 연도의 특성으로 측정된 조세제도의 개편이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구체적 세법내용이 증여재산의 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적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거나 증여인·수증인 관계별 증여 사실의 경우와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증여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조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일부 가구별 특성은 증여금액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 일반적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동일인으로부터의 10년 이내의 재차증여의 경우 증여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과도한 증여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조세회피 유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가구순소득이 감소할수록 증여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보유재산에 비해 소득이 낮은 고연령 계층이 주된 증여자인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2018년의 신고세액공제율 인하로(7%→5%)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는 증여금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은 반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및 기타 친인척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공과와 함께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증여인·수증인 관계 및 증여재산 선택의 의사결정에서 조세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된 반면 증여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보다 직접적 의사결정에서는 조세적 요인이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된 차이점을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 »II-3

## 주관적 기대수명의 결정요인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개인이 주관적으로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은퇴시점 결정, 연금 상품 가입, 자산 축적 등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의 2015~2018년 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의 주관적 기대수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기대수명이 저축성향, 사적연금 가입, 순자산 축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했다. 특히, 국내 주요 선행연구에서 관찰되는 남녀 간 기대수명 형성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구 구성 등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검토하고자 했다. 재정패널 표본의 주관적 기대 여명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통계청의 생명표 대비 뚜렷하게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맞벌이·홀벌이, 여성 가구주 여부 등 가구 구성의 정보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주관적 기대여명은 근로층의 사적 연금 가입 및 고령층의 순자산 축적 수준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특히 여성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관적 기대여명의 예측 오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해당 계층의 안정적 노후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III-1

##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조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처치효과 분석의 이중 강건성(Doubly Robust) 방법을 통하여

손용진 부산노인건강센터 박사

본 연구는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가 수급자의 조세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정책처치변수는 공적연금 수혜여부이다. 기초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수급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세태도가 다를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 노령층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소득보장정책의 한 축으로서 경제적 생활안정뿐 아니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12차 한국재정패널조사에서 2,31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세태도변수는 한국재정패널 의식조사표에 있는 '조세 및 복지제도' 영역 중 3개 문항에서 '세금납부 적절성' '세금혜택 적절성' 그리고 '세금부담 적절성'을 포함하였다. 평균 처치효과 산출 방법은 IPW와 RA추정치를 결합한 이중 강건성(Doubly Robust)방법을 도입하여 IPWRA와 AIPW추정치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4개 그룹의 공적연금집단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집단, 국민연금집단, 둘 다 받는집단, 그리고 둘 다 받지 않는 집단이다. '처치변수 → 조세태도'의 조세정책 인과효과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변수는 사회인구변수와 경제활동상태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개 추정방법 - IPWRA과 AIPW - 에서 기초연금집단이 국민연금집단보다 유의미한 조세태도의 적절성이 나타났고, 기초연금집단이 둘 다 받지 않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조세태도의 적절성을 보였다. 즉, 기초연금집단이 조세태도에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평균 처치효과분석에서 일관성 있게 도출되었다. RA과 IPWRA 간에 평균 처치효과는 큰 차이가 없었고, IPW와 AIPW 간에도 평균 처치효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서로 다른 공적연금수혜집단 간에 조세태도 갭(gap)을 줄여서 긍정적인 조세태도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III-2

### 소득공제 활용이 개인소득세 절감과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

본 연구는 납세자별로 공제제도 활용에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공제제도를 통한 조세절감과 납세의식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납세자별 특성, 고소득자 여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자 등 소득 종류별 적용되는 공제제도가 다르므로 세액절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했으며, 납세의식 관계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제금액과 공제비율은 세액절감(비율)과 각각 음(-)과 양(+의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나 공제금액의 크기보다는 본인 소득금액 대비 공제금액의 비율이 높아야 세액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자에 비해 세액절감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별 소득공제 활용에 차이가 나며, 종합소득신고자는 자진 신고·납부하므로 공제나 기타 조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석된다.

납세의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소득금액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조세공평성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자에 비해 조세공평성이나 정부혜택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을 확률이 높았다. 추가 세 부담 의향의 경우 현재 본인 소득 수준 대비 세금 부담이 적은 납세자일수록 추가 세금 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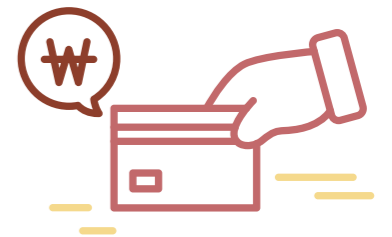
본 연구는 고소득자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차이, 소득공제 비율이 실제 세액절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세액절감 정도나 고소득자, 근로소득자 여부 등 납세자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 차이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 »III-3

###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와 조세정책의 역할: 신용카드소득공제 개편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우형 한성대학교 교수  
박주혜 한성대학교 석사과정

정부는 신용카드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여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도입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 최근에는 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축소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 변화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약 6.7%p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비중이 높은 산업과 소득이 낮은 자영업가구가 제도 변화 이후 소득탈루율이 더욱 크게 증가하여, 제도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 »IV-1

### 문화 관련 지출항목들의 소득탄력성 추정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1~12차 재정패널자료를 Anker(2011)의 소득탄력성 추정방식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비 지출과 3개 세부지출 항목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서적·음반과 박물관·공연·영화 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계속 감소, 신문·잡지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5년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0.5% 수준에서 유지, 체육·음악·문화활동비는 증가 후 급감하고 있다. 둘째, 문화·체육비 총지출액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낮아 필수재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 서적·음반과 박물관·공연·영화의 소득탄력성 값이 1보다 커서 사치재 성격으로 보여주며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서적·음반에 대한 지출이 더 탄력적인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어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도서구입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셋째, 신문·잡지 지출액의 소득탄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일부 연도에서는 열등재 성격을 보여주어 최근의 신문과 잡지시장의 현실을 잘 반영해준다.



## »IV-2

### Estimation of Nested Logit and Threshold Regression Model for Household Motorcycle Selection

김병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We develop the model of binary choice model that find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s for choosing the brands of motorcycle: DaeLim, Hyosung, and Suzuki, etc. We performed the estimation of several types of qualitative dependent variable models. Estimation of binary probit results shows, as a transportation instrument of family, the choice for motorcycle shows that it is not an inferior good considering the systematic selection of sample.

Discrete threshold regression shows that the domestically produced motorcycle(e.g. DaeLim brand) become an inferior good as the consumer(household) have relatively high income.

In the case multiple choice estimated by multinomial logit model, the results lead to the guess that higher family income decrease the choice of motorcycle, and then increase the preference for cars.

## »IV-3

**차종별 유종별 자가 차량 연료 수요탄력성  
조세정책상의 시사점**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자가 차량의 연료 수요탄력성을 추정한다. 특히, 최적 유류세의 도출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료별, 그리고 연식에 따른 차종별 가격탄력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휘발유 자가 차량의 연료 수요 가격탄력성은  $-0.640 \sim -0.665$ 로, 경유 자가 차량의 연료 수요 가격탄력성은  $-0.700 \sim -0.791$ 로 각각 추정되었다. 유종별 소득탄력성의 경우, 매우 낮게 추정되어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0.035, 0.027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경유 자가 차량을 연식에 따라 1~3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가격탄력성을 도출한 결과, 1집단(2011년 이후 연식)과 2집단(2006~2010년식), 3집단(2005년 이전 연식)에서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0.677 \sim -0.687$ ,  $-0.730 \sim -0.966$ ,  $-0.688 \sim -0.780$ 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류세를 사회후생의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적화할 때, 현행 유류세 및 관련세제하에서는 평균 외부비용으로 세율을 정하기보다 좀 더 세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한다. 반면, 만약 현행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제도가 화물차 운전자들이 세율에 반응하도록 개편된다면, 그때는 유류세 세율을 오히려 평균 외부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사회후생의 손실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 »V-1

**부모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차이 분석**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08~2018년 기간 동안의 학령기 자녀(19세 미만)의 성장(연령의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 수준을 분석하고, 가구의 경제활동 유형(맞벌이 가구 및 근로 시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차이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비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구의 경제활동 유형은 소비 지출의 중요 요인으로 간주될 뿐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의 2008~2018년 가구자료 중 교육비 지출액 정보를 활용하여 19세 미만 가구에 전체에 대한 사교육비 패널을 재구성하였으며, 성장 곡선 모형(growth curve model)을 통해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궤적과 가구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궤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둘째, 맞벌이 여부로 구분한 부모(가구)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의 지출액의 변화는 학교급(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성장 곡선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에 통해 추정(estimated)한 연령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교 기간 동안에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액에 차이가 없었으나, 영유아 단계나 중학교 이후 단계에서는 외벌이 가구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40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배우자(모)의 근로시간 정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성장 곡선 모형을 활용해 추정(estimated)한 결과 초등학교 시기에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배우자(모)의 자녀들이 사교육비 지출액이 많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모)의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식별 가능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가구 경제활동 유형이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2

**차원축소형 통계 방법론을 활용한 기부참여 결정요인 연구: LASSO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기부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재정패널데이터는 가구 및 가구원 수준에서 광범위한 설문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변수의 선택과 조합을 통하여 개인의 기부동기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설명변수가 많아지면 회귀계수의 분산이 커져 예측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연구모형의 간결함을 위하여 설명변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주관에 따른 체계적인 선택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차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모형의 과다설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원축소형 통계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별점화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회귀계수를 완전 축소하는 LASSO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변수 선택의 중립성을 유지한 간소한 기부참여 의사결정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구 및 가구원 수준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32개의 잠재적 설명변수에 LASSO 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기부의 유형에 따라 기부참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종교적 기부참여는 종교, 거주지역, 외식비 지출 규모, 부채 규모, 복지확대 시의 세부담 의향과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자선적 기부참여의 경우에는 종교와 음(-)의 관련성을 보인 반면에 거주지역, 교육수준, 차량 보유 여부, 소득수준, 근로소득, 저축 규모, 문화비 지출 규모, 부채 규모, 연말정산 환급 여부가 유의적인 양(+)의 연관성을 드러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 기부에는 적극적이거나 자선적 기부에는 소극적이라는 점,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종교적 기부참여 및 자선적 기부참여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별히 주목을 이끄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 학위논문

제목	저자	비고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의 정책 효과성 평가	권예솔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자가와 차가가구의 주택에 대한 자산효과 비교연구	최우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연간 사회보험금 수령액이 정부의 세무행정 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환준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근로장려금 제도(근로장려세제)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분석	노대영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 최근 1년간 재정패널을 활용한 학위논문들의 목록입니다.

## 학술논문

제목	저자	비고
가구 단위의 세속적 기부, 종교적 기부, 상호부조적 기부행동 간 관계와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 - 기부규모와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	강철희 최민지 강아름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72(1), pp.139-173
위험회피성향에 따른 부동산 자산 선호 분석	김대환 김태안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 6(2), pp.61-81
디젤게이트가 독일 자동차 수요에 미친 외부효과 연구	김대환 박성권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38(2), pp.67-85
1인가구의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만족도	김선주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10(1), pp.39-62
기계학습을 활용한 주택매도 결정요인 분석 및 예측 모델 구축	김은미 김상봉 조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재적과 국토정보, 50(1), pp.181-200

\* 최근 1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목록입니다.

## 학술논문

제목	저자	비고
담배 소비의 가격탄력성 추정 : 고정효과 패널 분위수 회귀	설윤 김형건	한국자료분석학회, 22(3), pp.1173-1187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절세효과가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심해린 전병욱	세무학연구, 37(1), pp.119-151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및 해외여행 결정요인 분석	오현희 김수정	관광학 연구, 44(3), pp.71-87
기대여명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사적연금 수요 분석	이경희 전병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관리연구, 31(2), pp.91-131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 공제방식 전환에 따른 행태변화 분석	이상엽 윤성주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0(2), pp.187-210
납세자의 종교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영한 신나리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0(2), pp.69-98

\* 최근 1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목록입니다.

## 학술논문

제목	저자	비고
납세자의 조세공평성인식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가? 2014년 소득세 특별세액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이영한 신나리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45(1), pp.37-68
가구의 주거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 간의 패턴 분석: 의사결정나무모형 기법을 이용하여	이정화 김건우 최근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2), pp.327-336
문화바우처 정책변화가 문화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임재훈 윤영채	서울대행정연구소 행정논총, 58(1), pp.187-214
절세효과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1(2), pp.61-91
자산 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정다운 강동익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9(5), pp.179
2018년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현황 및 추이	정원정 김윤경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지, 30(1), pp.126-130

\* 최근 1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목록입니다.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발 행 일 : 2020. 10. 30.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DB팀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배포문의 : panel@kipf.re.kr, 044-414-2473/2394

홈페이지 : <https://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